

古代 驅儼儀禮 研究

황 경 숙*

차 례

- | | |
|----------------------|------------------------|
| 1. 서론 | 2) 고대 설화와 잡사에 나타난 구나의례 |
| 2. 나례의 개념과 나례 규식의 특성 | 3) 벽사가면과 벽사무 |
| 3. 고대의 구나의례 | 4. 결론 |
| 1) 삼한의 사령신앙과 장례벽사의례 | |

1. 서 론

중국의 구나의례가 우리나라에 수용된 시기는 고려초다. 구나의례가 고려초 수용되어 조선조에까지 궁중의 정례적인 행사로 행해져 오면서 우리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런데 구나의례가 우리문화에 끼친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나의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간의 구나의례연구는 주로 가면극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부분 또한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남겨 두고 있다.

구나의례가 우리 문화에 끼친 연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구나의례가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오랜 세월동안 행해질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는 것과 고려와 조선조를 걸쳐오면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그 변화의 성격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과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 구나의례 연구의 한 시도로서 한국적 구나의례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과 고려이전의 문헌자료에 나타난 구나의례 성격을 면 의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나례의 개념과 나례규식의 특성

나례에 대한 정의는 나례가 오랜 세월 동안 거행되어 오면서 자체적인 변화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간의 나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대별 된다. 하나는 포괄적인 정의로 나례를 사귀를 축출하는 벽사의례라 규정한 것이다.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에서 피력한 다음의 글이 그 대표적 예다.

儻는 마찬가지로 逐鬼 驅疫에서도 사회의 전체적 의미로써 거행하는 者를 이름이니 지방 미개 인민의 간에 행하는 바를 보건대 그 간단한 형식은 叫呼와 打擲으로써 악령을 부락중에서 축출하는 것으로서 흔히 軍中이 作隊하여 名家로 돌아다니면서 가내의 邪鬼를 挿心하여 호외로 驅出하여다가 마지막 부락의 境外로 퇴송하는 式을 취한다.¹⁾

이 같은 견해에 따르면 모든 구나의례들 즉, 금줄·제웅치기·동짓날 팔죽 등등이 모두 나례가 된다. 나례정의는 의례의 목적을 바탕으로 하되 의례 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례의 거행시기나 규식에 주목하여 나례를 정의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다음과 같다.

○ 儻禮라하는 것은 禮記月令에 依하면 春秋冬 어느때나 行한 形跡이 있으나 大體로는 陰曆十二月除夜에 惡鬼를 쫓아내려고 宮中에서 舉行하는 一種의 儀式이며 一年中의 災殃, 病魔 等の 惡鬼를 모조리 驅逐하고 질겁게 新年을 마치하려고 一年의 마지막날 밤에 무서운假面을 얼굴에 쓰고 所謂

1)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최남선 전집 3권, p.325.

驅儺를 하는 것이다.²⁾

○ 儺禮는 중국에서 가장 오랜 기원의 疫鬼를 쫓는 민속으로 周나라에서는 方相氏(大儺)가 곰 가죽을 쓰고 黃金四目を 하고, 검고 붉은 의상에 창과 방패를 들고 百官을 인솔하여 악귀를 쫓았으며, 漢나라에서는 북송아 활에 가시의 화살, 赤頭巾의 童子 수백인을 동원한 주술적 행사였다.³⁾

○ 儺禮는 假面을 쓴 사람들이 일정한 연장 즉 창과 방패를 들고 呪文을 외면서 鬼神을 쫓는 동작을 하는 행사로 원래 일종의 假面儺라고도 볼 수 있다.⁴⁾

○ 나례는 옛날 궁중과 민간에서 선달 그믐날 탈을 쓴 사람들이 일정한 도구를 가지고 주문을 외치면서 귀신을 쫓는 동작을 하여 묵은 해의 잡귀를 몰아내던 의식이다.⁵⁾

위의 정의들은 특정 시기의 나례에만 적용될 수 있어 나례라 칭해지는 사례 전반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방상씨의 축역에 중심을 두면 송대의 궁중나례가 포섭되지 못하고, 제야에 국한하면 당대 이전의 궁중나례나 중국 현전 나례가 포섭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나례의 성격을 살펴보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례는 1. 逐鬼의례다. 2. 한 해를 맞이하는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거행되는 세시의례다.(중국의 경우 漢代까지는 남제 전일, 당·송대는 제야, 현전 민간나례는 정초,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제야.) 3. 가면을 쓴 사람들이 주구나 주문으로 귀신 쫓는 동작을 재연하여 축귀하는 주술의례다.(중국의 경우 진한 이래 당대까지는 방상씨가 주역이지만 송대에 이르면 방상씨는 민간신앙적 대상과 세속적 인물로 대체된다.) 4.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집단적 의례다. 따라서 나례는 새로운 해를 맞이 하기 위해 세말에 가면을 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주술적인 방법으로 잡귀를 퇴치하는 집단적 세시벽사의례라 정의를 내릴 수 있다.

2) 김재철, 『朝鮮演劇史』, 민속원, 1989, p.32.

3) 김택규, 『韓國農耕歲時的 研究』, 영남대출판부, 1991, p. 111.

4) 李杜鉉, 『韓國의 假面劇』, 一志社, 1985, p. 72.

5) 전경옥, 『한국의 탈』,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태학사, 1999 p.12.

3. 고대의 구나의례

1) 삼한의 사령신앙과 장례벽사의례

○ 『周禮』: 해석하여 말하길, 이른바 儺의 시기가 네 시기라는 것은 …… 계춘일에 대량에 지냄은 큰 무덤에 쌓여진 시신의 기운이 있어 모두 백성에게 악귀가 된다. 모든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儺를 명하기를 중추에 하고 천자가 儺를 하니 때가 문득 짝이다. 또한 큰 무덤에 시신의 쌓인 기운이 있어 이달에 양기에 대해서 儺를 행하나 양기가 이시기에 이르러 그치지 아니하여 그 해가 장차 사람에게 미치니 오직 천자 만이 곳을 할 수 있고, 제후는 또한 할 수 없다.⁶⁾

○ 『禮記』: 나인은 여귀를 쫓는다.⁷⁾

○ 『論語』 鄉黨: 지방사람들이 儺를 할 적에 조복을 입고 동쪽 섬돌에서 제했다.

그 후에 공안국이 이르길, 儺는 역귀를 몰아내는 것이다. 선조를 놀라게 할까 두려워 하여 조복을 입고 묘의 동쪽 섬돌에 제했다.⁸⁾

위의 기록에 의하면 나례는 큰 무덤에 쌓여진 시신의 기운인 死靈과 못된 돌림병에 죽은 귀신인 厲鬼를 재앙의 근원으로 보고 이를 축출하고자 하는 辟鬼儀禮로 死靈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례에 악공들이 등장하는 까닭은 숨어 있는 사귀들을 불러 모우고 제압하고자 함이다. 제의에서 춤과 음악은 降神과 娛神·送神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공자가 향인들이 나례를 거행할 때 동쪽 섬돌에서 있는 까닭은 나례가 死鬼들을 제압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死靈인 조상신이 두려워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

死靈과 해서 모두 재앙과 질병을 야기시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귀들이 선한 존재가 되거나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은 사귀에 대한 후손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조상숭배(제례)는 조상에 대한 敬慕와 畏敬이라는 상반된 관념의 상보적 관계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죽어 魂·鬼·魄으로 나뉘어

6) 釋曰 云時儺四者時 …… 以季春日歷大梁 有大陵積尸之氣 與民爲厲 命有國者儺仲秋乃云天子乃難 時斗建酉 亦有大陵尸積之氣 此月儺陽氣 陽氣至此不止 害將及人 惟天子得儺 諸侯亦不得

7) 儺人 所逐厲鬼也

8) 鄉人儺 朝服而立於阼階 그 注에 孔安國曰 儺驅逐疫鬼也恐驚先祖 故朝服立廟之阼階也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魄 땅으로 돌아가며 귀는 공중에 떠돈다 한다. 이중 공중에 떠도는 귀는 자손들에 의해 위안을 받을 때는 떠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魄과 서로 응집해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게 된다. 특히 정상적으로 죽지 못한 사람 예컨대 질병으로 죽은 사람, 익사한 사람, 요절한 사람, 살해당한 사람, 전쟁으로 죽은 사람 등과 같이 원한이 많은 사람의 귀들은 공중을 배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끼치는 邪鬼가 되는 것이다. 귀신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은 귀는 신에 대해 열등한 존재이며 위협적인 대상- 자신보다 더 큰 귀신이나 위력을 가진 존재나 사물, 陽氣과 같은 대립적인 기운 -에 굴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에서 사귀의 축출은 祈禱를 통해 신의 힘을 빌리는 종교적 행위로도 나타나고 주물과 주연을 통한 위압적인 주술 행위로도 나타나는데, 나례는 주기적으로 邪鬼들을 위협적인 가면과 주구들을 가지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제압하여 재앙을 막고자 하는 의례다.

사령을 재앙의 근원으로 믿는 사유관은 삼한시대의 장례풍습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사례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늙으면 차츰 장사 지낼 준비를 하는데, 금은과 재물을 많이 써서 후하게 장사를 치르고 돌을 쌓아 봉분도 만들고 또한 소나무와 잣나무도 심는다.(후한서 동이전, 고구려)

○ 사람이 혹 중한 병으로 앓거나 죽는 일이 있으면 그 집을 헐어 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 살았다.(후한서 동이전, 예)

○ 그들이 장사지내는 것을 보면 큰 나무로 판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십여 길이나 된다. 이것을 한쪽에 문을 만들어 놓는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가매장을 해 놓는다. 시체는 겨우 몸만 가릴 만큼 흙으로 덮었다가 살이 다 썩으면 뼈만을 추려서 판 속에 넣는다. 이리하여 온 집안 사람의 뼈가 한 판 속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나무로 산 사람 모양을 새겨 꽃아서 그 나무의 수효로 죽은 사람의 수를 알게 한다. 또 기와로 만든 술을 판 끝에 매달고 그 속에 쌀을 넣어 두는 것도 이 나라 풍속이다.(삼국지 동이전, 동옥저)

○ 부여에는 사람이 여름에 사망하였을 때 얼음을 채워 두고 사람을 죽여 순장을 했으며 관은 있으되 판은 없었다.(삼국지 동이전, 부여)

○ 죽은 사람은 집 안에 빈소를 만들어 놓았다가 3년이 지난 뒤에 길일을 가려서 장사지낸다. 부모나 남편이 죽었을 때는 모두 3년 복을 입고 형제간에는 석 달을 입는다. 초종을 치를 때는 모두 곡하고 울지만, 장사를 치르고 나면 복을 치고 춤을 추면서 풍류를 아뢰어서 죽은 이를 보내는 예를 베푼다. (수서 동이전, 고려)

○ 사람이 죽어 장사지낼 때는 큰 새의 날개를 다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이 날아가라는 뜻이다. (삼국지 동이전, 변진)

위의 기록들을 총괄해보면, 장례의례는 사자를 현실적 삶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이양시키는 의례다. 이는 곧 사령이 현실적 삶으로 귀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례이기도 하다. 즉 장례에 나타나는 종교적 의례들은 죽은자를 위한 의례이면서 동시에 살아남은 자를 위한 의례이기도 한 것이다. '시신을 얼음으로 보존하여 훼손을 막는 것' '새의 깃털을 달아 승천하게 하는 것' '춤과 음악으로 위무하여 보내는 것' 등은 사령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게 됨으로 해서 재앙을 야기시키는 귀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무덤 주위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 것'은 소나무와 잣나무를 神樹로 관념하여 경계로 삼음으로 해서 잡귀가 무덤 속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도 하면서 무덤 속의 사령이 현실세계로 출현치 못하도록 막고 있기도 한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새로 집을 짓는 것'은 흑시도 사귀들이 지상에 머물러 인간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무덤에 술과 쌀을 넣어두는 것 또한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를 동일시한 바탕에서 사귀를 죽음의 세계에 영원히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사자가 현실적 삶으로 귀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교적 의례가 구석기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⁹⁾을 고려한다면 장례의례의 원초적인 목적은 사귀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례행위들인 것이다. 특히 이 중 '장례 후 거행한 노래와 춤' '소나무와 잣나무 심기' '술과 쌀두기' 등은 죽음과 재앙을 막고자 했던 당시 벽사의례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무'를 통한 벽사의례는

9) "舊石器人들도 죽은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는 경험을 했고, 死者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死者가 현실적인 삶으로 귀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교적 의례들도 고안해 내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죽은 시체를 껴든가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李恩奉, 『韓國古代宗教思想』, 집문당, 1984, p.30.

신라시대 역신을 퇴치하는 처용무에서도 나타나며, 매굿-지신밟기에서도 계승되어오고 있고, '소나무'는 금줄과 함께 잡귀의 침범을 막는 것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술과 쌀'은 '반합'과 같이 저승에서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신을 제사 지내는 법은 좀 다르다. 부엌을 집 서쪽에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낸다."(삼국지 동이전, 변진)는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삼한시대 이미 부엌신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쪽이라면 죽음의 방향이다. 특별히 부엌을 서쪽에 두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음의 기운을 부엌신의 위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엌신이라 하면 곧 화덕과 솥의 신 즉 조왕신과도 같은 것이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는 부엌신이 가신의 단계로 정착되지 아니한 것 같다. 부엌신은 후에 중국의 조왕신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분명한 신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사 갈 때 먼저, 화덕이나 솥을 옮겨 놓음으로 해서 잡귀를 퇴치하는 것이라든지 외출한 후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돌려 잡귀를 소멸시키는 사례들은 위 기록의 유습이라 볼 수 있다. 현전 지신밟기에 쌀을 뿌려 축귀하는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쌀은 흰색 그리고 다산성으로 인해 축귀력을 갖는 것으로 인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술과 쌀은 축귀적인 의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상의 삼한시대 장례의 기록만으로도 사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것에 대응하는 주술적 구나이의례의 습속이 고대로부터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 나라가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오랫동안 거행될 수 있었던 동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死鬼와 재앙과의 관계에 대한 관념 및 그 대응의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귀에 대한 관념과 구나이의례의 습속은 나라의 수용에만 머물지 않고 나라에 '처용무가' 첨가되어 한국적 연변(演變)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로 사신을 맞이할 때나 부묘를 거행한 뒤 왕이 환궁할 때, 태실에 태를 봉안 할 때와 같이 공간의 통과이레 과정에서 잡귀를 퇴치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어 나라의 기능을 확대시킨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고 본다.

2) 고대 설화와 잡사에 나타난 벽사의례

삼국유사의 '志鬼' '鼻荊郎' 處容郎 '密本摧邪' 설화는 당시 민간에 전승되어

은 벽사의례의 양상들과 벽사신에 대한 관념을 보여준다.

○ 진평왕이 그 이상한 소문을 듣고 비형을 데려다가 궁중에서 키웠다. 나이 열다섯이 되자 벼슬을 주었더니 밤마다 멀리 도망가 멀리서 놀았다. 왕이 용사 50인을 시켜 지키게 했어도 번번이 월성을 넘어서 서쪽 황천 쪽 위로 가서-서울 서쪽에 있다.- 도깨비의 무리를 거느리고 놀았다. 용사들이 숲에 숨어 몰래 엿보니 도깨비들은 각 절의 새벽 종소리를 듣자 가기 헤어지고, 비형랑도 돌아왔다.……비형랑이 명령을 받고 그 무리로 하여금 돌을 다듬게 해서 큰 다리를 하룻밤에 완성했다. 그래서 도깨비다리라 한다.…… 임종이 길달에게 명해 홍륜사 문에 다락을 새우게 했더니, 밤마다 그리로 가서 그 문 위에서 잠을 잤다. 그래서 길달문이라 하였다.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화하여 도망쳐 가버리니 비형이 귀신을 시켜 잡아죽였다. 이 때문에 귀신무리들이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겁을 내어 달아났다.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글을 지었다. “가룩한 임금의 영혼이 낳은 아들/ 비형랑이 있던 방이 여기라요/ 날고 뛰어 쏘대는 못귀신들아/ 이 곳에는 머물지 못할지라” 나라 풍속에 이 글을 써서 붙여 귀신을 쫓는다.(三國遺事 桃花女 鼻荊郎)

위의 설화에는 원혼은 그 한을 풀었을 때만 사라지고, 귀신은 인간을 도우는 존재이기도 하고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¹⁰⁾와 같은 당시의 귀신에 대한 다양한 속신들이 나타나 있다. 이 중 벽사와 관련된 것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귀는 귀신들이 드나드는 통로- 도깨비 다리·길달문-에 머물러 악귀들을 퇴치한다는 속신이다. 이는 관문에 큰 귀신을 좌정시켜 벽사를 피한 습속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비형은 鼻(코)+ 荊(가시나무)를 의미다. 귀신들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갈 때는 입과 귀 성기와 같은 구멍을 통하다. 그러나 귀신들은 신체의 구멍 중 눈과 코는 피한다고 한다. 눈과 코를 피하는 연유는 눈은 神氣가 있고 청명하여 그 임무를 마치 감찰관과도 같이 철저히 하고 코도 또한 냄새를 맡고 식별하는 기관이므로 이를 통하여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것¹¹⁾이다. 귀신이 꺼려하는 것은 귀신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이로써 눈과 코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벽사력의 원천으로도 인식된다. 신라 호우총 ‘목심칠면’의 황금테를 두른 유리눈과 나례 방상씨의 황금사목은 황색의 촉귀력과 눈의 벽사력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다.

비형랑의 코는 고려시대의 처용탈의 코와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국적

10) 村山智順, 노성환역, 『조선의 귀신』, 민음사, 1990, pp.19-20 참조.

11) 앞의 책, pp.105-106

인 모습을 보여주는 커다란 처용 탈의 코는 처용의 사실적인 재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처용무가 벽사무임에 견주어 본다면 처용의 벽사력을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전 말뚝이 탈의 과장된 코와도 관련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말뚝이는 부정적인 인물을 제압하려 한다는 점에서 벽사의례의 벽사자와 같은 존재다. 애초부터 말뚝이의 탈이 남성성기로 표현되었다기보다는 코의 과장으로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던 것에서 코가 돌출되어 있다는 사실과 성기가 연계되고 가면극이 예능적 놀이로 변모하게 되면서 단순히 큰 코에서 남성 성기의 유추으로 변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가시나무는 복숭아나무와 함께 축귀하는 주구로 민속에 빈번히 사용된다. 엄나무를 문위에 걸어두는 것이 그 예다. 비형의 명칭은 비형이 악귀를 퇴치하는 존재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전승되어 오던 대표적인 벽사물을 벽사신의 명칭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귀신은 주로 밤에 활동하고 새벽을 싫어하며, 종소리와 같은 쇳소리를 싫어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벽사의례가 주로 밤에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금속소리로 벽사한 습속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무당들의 방울, 寺院 儼에서 바라, 민간의 儼인 매굿에서의 징과 팽파리의 기능과 같은 것이다. 셋째, 축귀 주가가 규범화되었음과 문첩 벽사의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동해 용이 기뻐하여 곧 아들 일곱을 데리고 임금이 탄 수레 앞에 나타나 왕의 덕행을 찬미하면서 춤과 노래를 연주하였다. 그의 아들 하나가 임금을 따라 서울로 들어와서 왕의 정치를 보좌케 되었는데 이름을 처용이라고 하였다. 왕이 그를 미인에게 장가들이고 그의 마음을 안착시키고자 다시 급간 벼슬까지 주었다. 그의 아내가 너무도 고왔기 때문에 역병귀신이 탐을 내어 사람으로 변하여 밤이면 그 집에 가서 몰래 데리고 갔다. 처용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리 속에 두 사람이 누운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만 물려 나왔다. 그 노래에 이르기를 '동경 밝은 달밤에 이속히 놀고 다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고나/ 둘은 내해었고 둘은 뉘해인고/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는 걸 어찌리/라 했다. 이 때에 귀신이 처용 앞에 정체를 나타내어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아내를 탐내어 지금 그를 상관하였소 그런데도 당신은 노하지 않으니 감격스럽고 장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제부터는 맹세코 당신의 얼굴만 그려붙여 둔 것을 보아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겠소"하였다. 이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 등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그려붙여 나쁜 귀신을 쫓고 복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三國遺事 處容郎 望海寺)

비형량이 신으로 좌정하지 못하고 '큰 귀신'의 의미만 지니는 것임에 비해 처용은 문신으로 숭상되었다. 벽사의례도 주사를 붙이는 것에서 신의 형상을 붙이는 것으로 변모하였는데 이같은 변화는 이들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비형량 설화와 처용량 설화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은 문신-벽사신-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처용의 그림을 문에 붙여 역귀를 막는 풍속은 虛白堂의 '처용'-"처용은 한번 간후 돌아오질 않는구나 /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 다투어 그 얼굴을 그려내고 있네 / 요사를 물리치고 병을 미리 막으려고 / 해마다 새해 아침이면 문에다가 붙이네"와 '除夕 2수'-"문을 여니 鬱壘字요 / 창가에는 처용의 머리 / 액귀가 쫓겨갔으나"에도 나타나고 있어 조선 전기까지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세시기의 정초 '歲譜'에는 기록된 바 없어 조선중기 이후 이러한 풍속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유는 '처용무'의 전승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용무의 역사적 성격은 고려 이후 나라를 통해 계승되었지만 동시에 놀이로서의 계승도 있었다. 이러한 처용무의 이중적인 전승과정에서 처용에 대한 신관념이 희박해지게 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신라대 처용의 그림은 고려이후 처용 탈로 대체된다. 목은의 '구나행'에 "신라의 처용이 칠보(七寶)를 두르고 / 머리에 찢른 꽃엔 향기가 넘치네. / 긴 소매 날리며 태평무(太平舞)를 추는데"라 하였듯이 고려 궁중나례에는 구역의식 후 처용무가 거행되었는데 이 때 처용무는 탈을 쓰고 행한 것이다. 처용무가 나례에 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의 궁중나례가 당대 나례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나례는 진한의 단순 구역의식에서 한 대 이후 민간의 문신들을 수용하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에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적인 문신이 중국의 문신들과 함께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처용의 가면이 등장하게 된 것은 가면을 쓰고 축역하는 나라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최정여는 구나무인 신라 처용무의 원형을 고려악중 신라악인 '納蘇利'에서 찾았다. 즉, 용가면을 쓰고 춘 納蘇利는 현강왕 이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한 驅儼儀로 처용무는 納蘇利의 아버지 龍面에서 인간으로 화한 용자 처용의 인간가면으로 전환된 것이라 보았고, 처용의 인면가면 등장은 동물가면에서 인면가면으로 교체되는 가면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것¹²⁾이라

12) 최정여, '처용전후 구나의 양상', 『신라민속의 신연구』, 신라문화선양회, pp.149-150

하였다. 納蘇利가 처용무 이전에 국가적 구나무로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신라 처용무가 가면을 쓰고 추어졌는지는 속단 할 수 없다. 또한 納蘇利는 당악 관릉왕 가면무와 짝을 이루어 추는 것으로 독무로 추어진 처용무와 관련을 지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간다. 처용가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시기를 고려하면 처용의 가면은 궁중나례에 영향을 받아 형성됨으로 해서 納蘇利와 상응할 만한 구나무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닌가 한다.

처용의 역귀 퇴치는 '밝은 달밤에'에 거행되었다. 밝은 달밤이란 보름날이다. 앞의 비형랑 조에 귀신들이 주로 밤에 극성을 부린다 하였다. 처용과 관련시켜 보면 보름달 밤에 더욱더 잡귀들이 들끓어 이 날에 벽사의례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용 얼굴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는 보름날에 역귀들을 가무로 퇴치하고자 한 의례를 계승한 것은 아닌가 한다. 달리 생각하면 보름날 밤마다 주기적으로 역귀를 퇴치하던 습속이 있었기에 처용의 역신 퇴치를 보름날 밤으로 설정해 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현전 민간의 벽사의례인 '지신밟기'가 정월 대보름에 거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보름날 밤의 축귀의례 전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 지귀는 활리역 사람이다. 선덕왕의 아름다움을 사모해 슬퍼하며 우는 라고 모습이 야위었다.……잠을 깨서 지귀는 번민하고 절망하기를 오래 하더니 마음의 불이 일어나 그 탑을 둘러쌌다. 즉시 불귀신으로 변했다. 왕은 술사에게 명해 주문을 짓게 했다. "지귀의 마음속 불이 몸을 태워 불귀신이 되었구나. 푸른 바다 밖으로 흘려보내, 보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으리" 그때 풍속에 이 말을 벽에다 붙여 화재를 막았다(大東韻府群玉 권 20 지귀)

상사의 한과 화귀, 이는 비형랑에서 진지왕의 원혼이 한을 풀고 사라진 것과 달리 살아 생전의 원한이 있는 사람은 죽어 인간에 해를 끼치는 원귀가 된다는 관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설화는 실제 사실에 기반을 둔 설화이기보다는 '원한'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민과 왕이라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¹³⁾ 따라서 이 설화는 선덕여왕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귀설

참조

13) 강은해는 '신라 문신설화의 구조와 그 소설화', 『한국학논집』, 제19집, 1992, p.12에서 '선덕왕지기삼사'와 관련해 볼 때 선덕여왕은 비범한 통찰력을 가진 이인

화는 비형량과 마찬가지로 주사를 문 벽에다 붙여 벽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벽사의례가 상당히 그 시대에 보편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화귀를 진압하기 위해 선덕여왕이 술사로 하여금 주사를 짓게 했다는 것은 화귀의 축역은 당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거행한 것이 아닌가 한다. 진도 지방의 '도깨비 굿'은 여성들만이 참여하여 양동이나 솔뚜껑 등을 두드리며 축귀하는 의례로 이러한 여성 중심의 벽사의례가 이미 오래전에서부터 형성 전승되어왔으리라 생각할 수 있고, 귀의 성격에 따라 인간의 性-gender-도 축귀의 위력을 갖는 것이기에 화귀-남성원리-의 대립적 기운인 여성이 벽사의 주체가 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삼국유사』권 5 神呪편의 '密本推邪'에는 선덕여왕대의 密敎 승려인 밀본이 疫鬼를 몰아내어 치병한 내용이 있다. 하나는 선덕왕이 병으로 위독 할 때 밀본이 약사경을 읽자 육지환이 침실로 날아 들어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찢러 물리친 이야기고, 하나는 김량도의 소년시절 병이 났을 때 밀본이 힘센 신령으로 하여금 쇠 갑옷과 긴창으로 무장을 하고 와서 뭇귀신을 잡아가게 한 이야기다. 이 설화는 무속과 불교에서 치병을 위한 벽사의례를 행했음을 보여준다. 이 설화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밀본의 두 번째 도술, 신령이 쇠갑옷과 긴창으로 축귀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역귀를 위협하는 방식에 있어서 앞의 설화들과 차이가 있다. 신령의 차림은 혹 불교의 금강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 위협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위 축귀 방식은 밀본의 도술이지만 이 이야기가 민간에 오랫동안 회자되어왔다면 이러한 양상의 축귀방식은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아니면 이후 민간에 수용되었을 수도 있다. 신령의 축귀 도구는 나례의 방상씨·진자의 도구와 유사하다. 귀신을 잡아간다는 것은 귀신을 포박하거나 가두거나 했다는 것인데, 귀신의 포박·감금은 신도 울뢰와 같은 문신들이 나례에서 귀신을 다루는 것과 동일하다. 이 또한 나례 형성의 동인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四城門祭' '四大道祭' '壓丘祭' '辟氣祭'는 신라에서 거행된 국가적 벽사의례들이다.

이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지귀설화에서 선덕여왕은 주사를 지어 불귀신을 막도록 방술을 지시한 인물은 여왕이므로 선덕여왕 자신이 주술적 신격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주사를 명한 것과 주술적 신격을 관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네 성문 제사는 첫째 대정문, 둘째 토산량문, 셋째 습비문, 넷째 왕후제문에 지냈으며,……네 한길 제사는 동쪽은 고리, 남쪽은 침병수, 서쪽은 저수, 북쪽은 활병기에서 각각 지냈으며 구룡 귀신을 진압하는 제사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제사도 지냈는 바 이상과 같은 제사는 혹은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혹은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행하여졌던 것이다.

‘四城門祭’ ‘四大道祭’ ‘壓丘祭’ ‘辟氣祭’는 매해 주기적으로 거행된 의례가 아니라 수재나 한재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비정기적으로 행해졌던 벽사의례다. ‘특별한 제도’에 의해서 거행되기도 했다 하는데 그 특별한 제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교적 국가의례와 달리 토착적인 민간신앙에 바탕을 둔 의례를 궁중에서 수용할 때 그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미 재해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행하는 의례라면 재해의 근원이라 관념한 잡귀들을 축출하고자 한 목적이 컸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의례는 유교적 의례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토착신앙에 바탕을 둔 무속적 방식들이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辟氣祭’는 侯禳祭(四時的 惡氣를 쫓는祭)¹⁴⁾로 제의 명에서 벽사의례임이 분명히 나타난다. ‘四城門祭’ ‘四大道祭’는 둘 다 관문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의례들로 이 두 의례는 순차적으로 행해졌을 것이다. 이 중 ‘四大道祭’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거릿대제’와 연결시킬 수 있겠다. ‘四城門祭’는 잡귀들을 성문 밖으로 축출하고 다시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술적인 행위를 수반했을 것인데, 위의 설화들과 관련시키면 문신이 가무를 행하거나, 주사를 성문에 붙이거나, 술사가 주문을 지어 부르는 등의 주술적 의례를 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형량과 지귀의 주사나 처용의 얼굴 그림이 민간의 벽사의례로 정착하게 되고 후대로까지 전승되는 데는 이러한 벽사의례들이 사회적인 의례로 정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설화에 나타난 의례 방식이 그 사회에 정례화된 의례라면 국가적 벽사의례에도 그대로 수용되었으리라 보는 것이다. 아니면 그 역으로 국가적 벽사의례에서 행해졌던 것이 민간에게로 이행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壓丘祭’에 대해서 김승찬은 김동욱의 壓兵祭설을 비판하면서 ‘壓丘祭’는 惡氣가 모이는 구룡의 재액을 제거하는 祓祭로 무력에 의하여 베풀어진 제의라 하

14) 김승찬, 『민속학산고』, 제일문화사, 1980, P.52.

여 이 제의가 역사의레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¹⁵⁾이 견해를 따르면 壓丘祭는 '四城門祭' '四大道祭'와 같이 관문-경계-에서 惡氣를 제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날 마을의 경계가 되는 구룡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통과시 돌을 얹어 액운을 물리치고자 하는 서낭제¹⁶⁾와 관련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돌무더기 신앙은 압구제를 민간에서 계승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壓丘祭'의 丘는 구룡의 뜻 외에 무덤의 뜻도 있어 또다른 추정이 가능한데, '壓丘祭'를 '무덤을 제압하기 위한 의례'로 본다면 앞장의 死靈관념과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장례를 보면 장지는 바다 산 평원 구룡 등 다양하다. 이 중 구룡¹⁷⁾의 장법과 관련을 지어 볼 수 있다. 산과 평원 바다는 각각 산신·토신·해신 등 신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구룡은 더 강한 신력과 연계를 갖고 있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주례』에서 나례가 “大陵積戶之氣”를 퇴치하고자 한 것이라 한 바와 같이 압구제도 구룡의 死鬼들을 쫓아 재앙을 막고자 한 역사의례가 아닌가 한다.

3) 벽사가면과 벽사무

가면의 발생은 초자연적 힘·정령들에 대한 경배 그리고 그 힘을 운용하고자 하는 주술의례에서 비롯되었다. 즉, ①외적이나 악령을 위협하기 위하여, ②신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하여 ③사자 숭배에서 죽은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기

15) 김승찬, 앞의 책, P. 52 참조.

16)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한국문화연구소, 1993, P. 161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밤꿈고개(울리-성북 사이에 있는 고개)에 있는 돌무더기, 당산곡(장항-배오개 사이에 있는 고개)에 있는 돌무더기, 天城峙(동성-천성 사이에 있는 고개)에 있는 돌무더기, 지양고개(천성-대항 사이에 있는 고개)에 있는 다섯 군대의 돌무더기, 외양포 입구에 있는 돌무더기를 당산이라 칭한다. 이 당산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돌을 한 개씩 주워 던져야 산길에서 위험과 액운이 없어진다고 한다.”

17) 구룡장법은 가야의 허황후묘에서도 나타나며, 『삼국사기』에서도 나타나 있다. 즉, 유리왕 27년에 “태자 해명이 여진의 동쪽 언덕으로 가서 창을 땅에 꽂아 두고 말을 달려 거기에 떨어져 죽었다. 그때 나이가 21세였다. 태자의 예로써 동쪽 언덕에 장사지내고 그 땅을 이름하여 창원이라고 했다”라 하였고 유리왕 37년에 “여류 4월 왕자 여진이 물에 빠져 죽었다.……겨울 10월에 두곡의 이궁에서 세상을 떠나니, 두곡의 동쪽 언덕에 장사지내고 시호를 유리왕명이라고 했다.”라 하였다.

위하여 ④토테미즘의 신앙에서 각종 동물을 가장하기 위한 모방에서 탈이 발생한 것이다.¹⁸⁾ ①은 벽사가면이요 ②③④는 신성가면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신성가면은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실 가면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가면이 나타내고 있는 영적 존재나 주술적 영력만을 통해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가면의 조형적 특징은 곧 어떤 영적 존재와 주술적 영력의 상징적 기호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가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가면을 문밖에 걸어둠으로 해서 악령을 위협하기도 하고 제당에 모셔두어 숭배하기도 한다. 반면에 가면은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주술물이기도 하여 인간이 가면을 착용함으로써 신과 인간을 매개할 수 있는 사제자로서의 직능을 발휘하게 하기도 한다. 가면무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초자연적 힘을 가진 존재로의 역할전환을 피함으로 해서 초자연적 힘을 가지화하고자 하는 욕구와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가면과 가면무는 인간이 자연이나 신과의 문제를 주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하여 후에 인간 상호간의 문제를 다루는 예술적 가면과 가면무로 변모되어갔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조개가면은 두 개의 눈과 입을 표현한 것으로 정확한 성격이나 용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가면의 발생에 비추어 볼 때 주술의례와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호우총의 木心漆面' '산에' '대면' '속독' '황창무' 와 같은 가면과 가면무가 나타나고 이와 함께 『삼국유사』권 5 감통 제7 '경흥우성'조에 열한가지의 가면과 춤도 나타난다. 고구려와 백제의 가면에 대한 문헌자료는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신묘에 모셨다는 나무신상에 대한 기록과 백제의 미마지가 일본에 전했다는 '伎樂'을 통해 볼 때 고구려에도 가면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백제의 경우 가면과 가면무는 상당히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라시대의 '목심칠면' '산에' '대면' '속독' '황창무' '경흥우성'조의 열한가지 가면과 춤 중 '속독' '황창무' '경흥우성'조의 가면무는 종교적인 것에서 예술로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즉, '속독'의 쑥대머리와 藍面과 '원양춤'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놀이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황창무'의 경우 『東京雜記』 풍속조와 『文獻備考』에 의하면 신라의 황창량이 검무를 빙자하

18) 최상수, 『한국 가면의 연구』, 성문각, 1984, p.14

여 백제의 왕을 죽이고 백제인들에게 피살되어, 신라인들이 이를 슬퍼하여 그 모습을 탈¹⁹⁾로 만들어 쓰고, 그 춤을 모방하여 검무를 추게되었다 하는데²⁰⁾ 이로 볼 때 황창무의 가면은 인간의 탈이며 그 기능은 단순한 역할전환²¹⁾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경흥우성조'의 가면은 "웬 여승이 와서……열한가지 모양의 탈을 만들어 각각 웃음거리 춤을 지었다. 뽀족도 하고 깎은 듯도 하여 가진 변태가 이루다 말할 수 없어 모두가 입을 가누지 못할 만큼 우스웠던지라 국사의 병이 감쪽같이 씻은 듯 나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웃음을 유발시키는 것을 주 목적²²⁾으로 하고 있다. 위의 사료들을 볼 때 신라시대의 가면은 주술 종교적 성격을 띤 것과 예능적 성격을 띤 것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벽사의례와 관련이 있는 '목심칠면'과 '대면' '산예'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주 壺杆塚에서 출토된 木心漆面(나무에 옷칠을 한 가면으로 두 눈에 황금의 瓊을 두르고 유리 눈알을 갖고 있으며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음)은 장례용 가면이다. 장례용 가면은 죽은 자를 잡귀로부터 보호하기 하는 일, 사자(死者)의 영혼이 구천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모로부터 본래 모습을 지켜 주는 일, 그리고 장례시 죽은 자를 상징하는 일을 담당한다.²³⁾ 호우종의 목심칠면은 그 위협적인 형상으로 볼 때 사자를 잡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용 가면이다. 눈은 신명이 깃들어 있고 깨꿨어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귀류들이 두려워한다. 목심칠면은 눈에 금환을 둘러 강조하고 유리는 알

-
- 19) 이두현은 전투모의무나 용검술의 묘기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연극성을 띤 가면 무로 보았고(앞의 책, p.48) 김일출은 신라의 화랑들 사이에서 추어졌고 복제의 대면과 마찬가지로 전투에서 적을 위협할 목적으로 사용된 <전사가면>의 일종으로 추정하였다『조선민속탈놀이 연구』, 과학원출판사, 1958, p.56)
- 20) 黃倡郎 新羅人也 諺傳 年七歲人 百濟市中舞劍 觀者如堵 濟王聞之 召觀 命升堂 舞劍 倡郎因刺王 國人殺之 羅人哀之 像其容爲假面 作羅劍之狀 至今傳之
- 21) 전정옥은 황창무의 탈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추조의 뜻과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는 뜻을 담고 있는 추억탈로 있다. 『한국의 탈』,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p.37)
- 22) 이두현은 앞의 책, p.19에서 醫術가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 기록의 가면이 치병의 주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웃음의 유발시킴으로써 치병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오락적인 가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3) 장 루이 베드안, 이강렬 역, 『가면의 민속학』, 경서원, 1986, p.116.

을 넣어 그 신명을 극대화하며, 뿔을 통해 위력을 가시화함으로써 해서 위협으로 귀류를 굴복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목심칠면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의 장례의례용 가면으로 보기보다는 중국 방상씨의 수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두현은

新羅에는 아직 中國의 周代 이래로 형식을 갖추었던 儼禮 儀式은 수입되지 않았고, 다만 喪禮의 형식만이 영향되어 그 방식이나 사용되던 呪具, 四方相假面 같은 것에서 영향을 받아들여 貴族들에게 있었서는 壺杆塚의 木心漆面같이 그 사치를 극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²⁴⁾

라 하여 목심칠면이 중국의 방상씨 탈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방상씨는 나의식에만 나타는 것이 아니라 장례행렬 앞에서 축귀를 하고 매장 전 광중에 들어가 方良을 몰아내기도 한 것으로 그에 대한 기록이 주례²⁵⁾에 나타나고 신라시대에 주례가 유입된 기록²⁶⁾이 있어 그 가능성은 크다 하겠다. 그러나 방상씨의 황금사목과 목심칠면의 금환을 두른 눈과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조형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김학주가 밝힌 바 있다. 전경옥은 이두현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순자』, 『비상편』의 “四目爲方相 兩目爲僇.” 기록과 『유양잡조』 권 13, “四目曰方相 兩目曰魘”를 바탕으로 방상씨 탈의 일종인 기(기)탈이라 보았다. 한편 중국의 顧樸光是 방상씨가 驅傩時에 假頭(魘頭)와 假面을 함께 쓰고 놀았기 때문에 이들이 합쳐져 四目으로 구성된 것이라 하고 四目方相氏假面은 조선의 변이형식이라 하여 방상씨 가면은 원래 二目이라 하였다²⁷⁾. 그러나 황금사목과 유리눈알을 갖고 금환을 두른 눈과 일치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머리에 난 두 뿔이 중국의 기에도 나타나는지 해명되지 않고 있어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또한 방상씨는 장례의 벽사의례를 행 한 후 온길을 피해 되돌아간다.

24) 李杜鉉, 『韓國의 假面劇』, 一志社, 1985, p.18.

25) “方相氏掌蒙熊皮, 黃金四目-----大喪, 先柩 及墓, 入壙, 以戈擊四隅敲方良”(『周禮』 권 31 夏官司馬四)

26) “國學 屬禮部 屬禮部 神文王二年 置 景德王改爲大學監 惠恭王復故----- 教授之法 以周易 尚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 或以禮記 周易 論語 孝經 或以春秋左傳 毛詩 論語 孝經 或以尚書 論語 孝經 文選教授之.”(『三國史記』 권 제38 잡지 제7)

27) 이두현, 『中國面具史』, 『비교민속학』14집, 비교민속학회, 1997, P. 515-516 참조.

부장품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²⁸⁾ 본 장에서 중요시 하고자 하는 것은 목심칠면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보다, 이 목심칠면은 우리 고유의 귀면일 가능성이 크고, 방상씨의 가면에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미 이 가면은 장례용 축귀가면으로 자국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三國史記』雜誌 최치원의 鄉樂雜詠 5수 중 ‘大面’과 ‘狻猊’는 벽사무의 성격을 띄고 있다.

大面
 금빛 탈을 썼다. 바로 그 사람
 방울채를 손에 쥐고 귀신을 쫓네
 잣은모리 느린가락 한바탕 춤은
 너울너울 봉황새가 날아드는 듯

대면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대면이 서역이나 중국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와 향토적인 구나무라고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

최남선은 “금색가면을 쓴 주술자가 사기를 물리치는 종교성의 무용극이니 시방 티베트의 풍속을 연상케 하는 것”²⁹⁾이라 하여 대면이 서역에서 영향받은 것이라 하였다. 송석하는 대면을 중국 나례의 방상씨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중국의 나례가 유입된 시기는 신라시대로 소급할 수 있는 것³⁰⁾이라 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김학주는 방상씨의 황금사목과 황금면색은 다른 것이고, 방상씨의 執戈揚楯과 방울 채찍 또한 다른 것이어서 나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서역문화 또한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기에 중국의 잡희와 관련지어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여 대면을 황금색의 가면을 쓴 난릉

28) 陶立璠, ‘중국의 假面문화’, 『비교민속학』 11집, 1994, p. 420에 “사천성 광안 삼성퇴에서 고고학자가 발견한 성형가공제 순금가면과 청동가면도 방상씨가 악귀를 쫓는데 사용하던 가면 부장품들이었다.”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방상씨 가면이 장례의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방상씨가 가면부장품을 매장했음을 알 수 있다.

29) 최남선, 앞의 책

30) 송석하는 ‘치용무 나례 산대극의 관계를 논함’, 『진단학보』제 2권 2호, 1935, p.109에서 향악5수도 나라고 보고 나대에 나례가 유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왕이 집편(執鞭)하고 부하를 지휘하는 것을 상징한 춤을 추는 대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³¹⁾ 대면회가 중국 북제의 '대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는 이두현³²⁾ 이해구³³⁾에 의해서도 주장된 바 있다. 한편 양재연과 윤광봉은 대면회는 武人戰鬪戲로 그 성격상으로는 연출 내용상 신라의 대면회와 상통되는 점을 찾기 힘들기에 <大面戲>를 鄉土色이 짙은 驅儼舞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³⁴⁾

대면의 금빛탈과 방울채를 나례의 방상씨의 묘사로 보기는 쉽지 않다. 김학주가 지적했듯이 방상씨는 황금면색이 아니라 황금사목인 것이고, 방울채가 아니라 執戈揚楯이다. 방상씨의 핵심은 눈에 있는 것이기에 얼굴빛과 눈빛의 유사성만으로 방상씨의 탈과 연관시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방상씨의 執戈揚楯은 중국의 나례를 유입한 이래 상당기간동안 변화되지 않다가 조선시대

- 31) “대면은 독무(獨舞)로서 황금색의 가면을 쓴 난릉왕이 집편(執鞭)하고 부하를 지휘하는 것을 상징한 춤을 추는 것을 최치원은 “역귀신”이라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면>은 나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바로 나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나례의 영향도 중국에서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김학주, 『한·중 두 나라의 가무와 잡희』, 서울대출판부, 1994, pp. 19-20. 같은 책 pp. 86-88에서는 “신라의 대면과 당회를 비교하면 가장 유사한 것은 (서랑기) 가운데의 사자랑이라 생각된다.……대면은 당나라의 서랑기의 사자랑의 춤이 수입되어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대면과 서랑기와 관련짓고 있다.
- 32) “唐代的 代面戲는 西北方 發祥의 驅儼舞인 胡舞龜茲曲이 중국에 들어와 唐代에 蘭陵王 傳說과 附會되어 이루어진 놀이이다. 그것이 다시 우리 나라에도 영향되어 新羅五伎의 大面戲와 劍舞, 그리고 驅儼의 성격의 處容舞가 成立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 李杜鉉, 『韓國의 假面劇』, 一志社, 1985, pp. 62-63.
- 33) “唐代 五伎의 하나인 代面(大面)戲와 日本에 전하는 부가부(舞樂)의 左方舞인 蘭陵王(蘭陵王)와도 비교되는 假面舞로 귀신을 쫓는 驅儼舞의 일종이다……唐代的 代面戲는 西北方 發祥의 驅儼舞인 胡舞龜茲曲이 중국에 들어와 唐代에 蘭陵王 傳說과 附會되어 이루어진 오래이다. 그것이 다시 우리 나라에도 영향되어 新羅五伎의 大面戲와 劍舞가 成立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해구 1967)
- 34) “<大面戲>는 鄉土色이 짙은 驅儼舞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은 춤을 통해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神의 가면을 쓴 사람끼리 싸움형태의 연회를 거행함으로써 연회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광봉, 『한국연희시연구』, 박이정, 1997. p. 39.

에 이르러서야 딱딱이를 드는 변모가 나타난다. 따라서 최치원의 향악잡영이 창작될 시기의 방울채를 방상씨의 한국적 변용으로 보기는 힘든 것이다. 대면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중국의 영향하에서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최치원이 '향악잡영'이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이 벽사가면무는 자국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대면을 향토적인 구나무로 본다면 이 작품에 나타난 황금가면을 쓰고 방울채를 손에 들고 귀신을 쫓는 모습은 신내림의 무당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황금색의 가면은 신의 모습을 모방한 것이고 방울채는 동명왕 신화에서 주몽이 비류국을 소낙비로 멸망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 책찌³⁵⁾와 관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통적인 무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성 풍속에 郡의 사당에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官에서 제사를 드린다. 비단으로 신의 가면을 만들어 사당안에 비치해 두면 12월 20일 이후에 그 신이 고을 사람에게 내린다. 그 신이 내린 사람은 그 가면을 쓰고 춤추며 그 관아의 안과 고을 동네를 돌아다니며 논다. 그러면 집집에서는 그 신을 맞이해다가 즐긴다. 그렇게 하다가 정월 보름 전에 그 신을 사당 안으로 돌려 보낸다. 이 풍속이 해마다 있으며 이는 나례신의 종류다.³⁶⁾([東國歲時記] 十二月 月內)

제주도 풍속에 대체로 산·늪·냇물·언덕·물가·평지·나무·돌 등이 있는 곳에다 고루 신의 사당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하여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무격이 신독을 받들고 나회를 행한다. 징과 북을 울리며 안내하여 동리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돈을 내놓으며 굿을 한다. 이것을 화반이라고 한다.³⁷⁾([東國歲時記] 正月 元日條)

위의 고성 풍속과 제주도 풍속에 의하면 우리나라 민간나례의 전통은 신내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신의 가면을 쓰고 축귀할 때 방울채와 같은 무구를 수반하였으리라 가정한다면 대면은 민간나례에서 추

35) 朱蒙以鞭畫水 水即滅

36) 高城俗 郡祀堂每月朔望, 自官祭之, 以錦緞作神假面 藏置堂中, 自臘月念後, 其神下降, 於邑人着其假面蹈舞, 出遊於衙內及邑村家迎而樂之, 至正月望前, 歲以 蓋儼神之類也

37) 濟州俗 凡於山藪 川池邱陵墳衍木石俱設神祀, 每自元日至上元, 巫覡擊神籥, 作儼戲, 錚鼓前導出入, 閭里民人爭捐財錢 以賽神, 名曰花盤

어진 일인 神舞라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신라의 가면무는 종교적이 성격을 띤 것과 놀이적 성격을 띤 것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 나레에서 거행된 무당에 의한 神舞가 놀이로 정착된 것이 대면이 아닐까 한다. '잡은모리 느린가락 한바탕 춤'은 처용의 춤과도 관련을 찾을 수 있는데, 완만하고 우아한 춤사위는 신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소박하고 차분한 남방계 열 巫舞의 특징³⁸⁾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狻猊

일만리 유사에서 건너왔기로
 누런 달은 다빠지고 먼지는 부애
 몸에 배인 착한 덕에 슬겁게 노니
 온갖 짐승 재주좋다 이와 같으리

향약잡영의 산에 이전에 이미 사자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三國史記』卷第四 中 新羅本紀 제4 智證麻立干의 목우사자는 벽사물이기보다는 적을 제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이사부가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으면서도 사나우므로 이들을 위세로서 굴복시키기 어려우나 좋은 계교로써 복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 많은 목우사자를 만들어서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해안에 이르러서 거짓말로 알리기를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 모조리 짓밟아 죽일 것이다."라고 하니 우산국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곧 항복하였다.³⁹⁾

그리고 『삼국사기』 잡지의 “于勒十貳曲……八曰 獅子伎”에서 가야국 가실왕이 우륵에게 명하여 짓게 한 12곡 중 ‘師子伎’가 있다. 그런데 향약잡영의 ‘狻猊’는 ‘일만리 유사에서 건너’온 사자로 이 사자무가 서역에 근원을 두고 있음

38) “북방계열의 춤은 도약적인 춤사위가 주류를 이루어 엑스타시(ecstasy) 상태로 돌입되는 초자아적(超自我的)인 반면 남방계열의 춤은 소박하며 차분하여 정중동(靜中動)의 요소가 많은 편이다.”(김은경, 『한국민속무용연구』, 형설출판사, p.100)

39) 謂于山人愚悍 乃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獅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을 말한다. 이 구절은 백거이의 <서량기> ‘流沙來萬里’와 상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자무의 수용 경로를 가름케 한다. 산예가 이미 벽사무라는 것은 밝혀졌고 북청사자놀이·오광대·수영야류·봉산탈춤등에서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다. 진홍왕대 이미 사자무가 행해졌고, 최치원이 향약잡영이라 한 바를 고려하면 사자무가 비단 서역->중국->우리나라로 수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벽사무의 한 전통으로서 이미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고는 한국 구나의례 연구의 한 시도로 한국적 구나의례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구나의례는 새로운 해를 맞이 하기 위해 가면을 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주술적인 방법으로 잡귀를 퇴치하는 집단적 세시구나의례라 규정하고 이에 준거해 고려이전 구나의례들의 존재양상들을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구나의례는 사령신앙 중 사령에 대한 부정적 관념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구나의례라 보고 고대 우리나라의 장례풍속에서 사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대응하는 주술적 구나의례의 습속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사료에 나타난 삼한시대의 장례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대 우리나라에서도 死鬼와 재앙과의 관계에 대한 관념 및 그 대응의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점이 중국의 구나의례를 수용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으리라 추정하여 보았다. 한국 구나의례는 중국 구나의례를 수용한 후 한국적 구나의례를 형성해갔는데 그 동인을 우리 고유의 혹은 타문화의 수용에서 출발하였을지라도 이미 자국화된 구나의례의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고 그 전통을 『삼국유사』 소재의 ‘鼻荊郎’ ‘處容郎’ ‘志鬼’ ‘密本推邪’ 및 『삼국사기』의 잡사, ‘목심칠면’·‘대면’·‘산예’ 등의 벽사가면과 벽사가면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중 중국 나례 수용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은 ① 주가 및 주술적 의례방식이 이미 사회적 의례로 규범화되어 있었다는 점 ②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구나의례가 제도화되어

있었다는 점 ③ 고유의 구나 가면인 호우총의 목심칠면 및 벽사가면무인 대면의 전통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파악해 보았다. 이 중 ①, ③은 가면 쓴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나의례 규식의 특성과 부합되는 것이고 ②는, 국가적인 행사로 구나의례가 자리잡게 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것이다. 특히 신라 문신 처용의 등장은 한국의 구나의례가 중국나례의 재판이 아니라 독자적인 모습을 갖추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처용이 고려나례에 수용되면서 역으로 받은 영향 또한 지대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처용탈의 등장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나례가 놀이적 성격을 띠면서 처용에 대한 신관념이 약화되어 조선 중기에 이르면 문신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게 된 점이다.

본고는 사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기 때문에 고대 구나의례의 양상들을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현전 민속을 통하여 재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고려시대 궁중나례의 전개과정과 대비하지 못하여 구체성이 결여된 점도 없지 않다. 이 점도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